

# 어명소 2차관, ‘육운 산업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 - 14일 육운의 날 기념식서 안전 최우선 노력 당부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 고종황제 자동차 시승일(1903.11.14)을 기념일로 지정, 1987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 어명소 차관은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육운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교통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육운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밝혔다.

□ 또한, 어 차관은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버스 터미널 시설 기준 개선, 화물차 톤급 규제 개선 등 육운 산업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겠다” 면서,

○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도심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ICT와 첨단 기술이 교통 분야에 융합되어 이전과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 “육운 산업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 핵심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업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면서, 정부도 육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어 차관은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면서,

○ “안전 관리의 작은 빈틈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며 안전을 최우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해성운수 양봉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하였고, 동아운수(주) 김말만 대표이사가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05만 명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방역수칙 철저 이행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2022. 11.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오늘 제36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은 육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운산업인이 된다.

하나.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교통안전선진화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화합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교통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 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 19종식과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2022년 11월 14일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